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9권 2호 (2016년 6월)



###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 이정옥 · 최해연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신주혜 · 정윤경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 남궁선 · 이영호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 이경숙 · 정빛나래 · 정석진 · 박진아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인쇄일 : 2016년 6월 15일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발행일 : 2016년 6월 15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제작처 : 책과공간

전 화 : 051-510-2135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 집 위 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 사 위 원 : 김민희(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은경(단국대학교)

김주희(연세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서경현(삼육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어주경(연세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유 경(한림대학교)

윤선아(국제대학교) 이기학(연세대학교)

이동귀(연세대학교)

이동형(부산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유진(가톨릭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장석환(차의과대학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진미경(숙명여자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현명호(중앙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Mee-Kyoung Kwon(U.C Davis)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Jung Choi(Yale University)

---

# 한국심리학회지

## 발 달

제 29 권 제 2 호 / 2016. 6.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 이정옥 · 최해연 / 1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 신주혜 · 정윤경 / 21

ADHD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 및 공감능력 부족과 또래관계문제와의 관련성

..... 남궁선 · 이영호 / 43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 이경숙 · 정빛나래 · 정석진 · 박진아 / 63

한국발달심리학회

##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이 정 옥

최 해 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Shapiro의 다차원적 통제 개념을 기반으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통제양식의 방식에 따라 어머니의 적응과 초등학생 자녀의 적응이 다른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153명과 그 어머니들이 짝을 이루어 연구에 참여하였다.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통제양식들의 조합으로 군집을 분류하고, 어머니 자신과 초등학생 자녀의 적응 지표에서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긍정적, 부정적 주장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주장형' 집단, 긍정적 수용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수용형' 집단, 부정적 수용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무기력형' 집단, 그리고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합형' 집단이 구분되었다. 통합형 집단은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에서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무기력형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통합형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그 자녀가 보고한 자율성 수준에서는 주장형 그룹과 비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통제양식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통제, 통제양식, 자율성, 군집분석, 모의 적응

\* 본 논문은 2015년도 이정옥의 석사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최해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137-86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7-1

Tel: 02-584-6851, E-mail: chychy22@empal.com

삶에서 통제감을 갖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Shapiro, Schwartz & Astin, 1996). 통제를 상실한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고 혼란을 경험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자존감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통제감은 인간에게 효능감으로 작용하여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개인의 통제감과 적응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왔다. 적절한 통제감을 보유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남현주, 이현지, 2005; 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Lachman & Weaver, 1998), 우울,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았다(남현주, 이현지, 2005; Averrill, 1973; Lachman & Weaver, 1998; Thompson, Sobolew-Shubin & Galbraith, 1993). 통제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Lachman & Weaver, 1998; Schieman & Turner, 1998: 장유리, 이정남, 윤현숙, 김수영, 2008에서 재인용), 흡연, 알코올 중독, 비만, 섭식 장애 등과 같은 문제행동과 우울의 치료 효과를 높인다(DeScio, Kitzman & Cole, 2003; Seeman & Seeman, 1983: 장유리 외, 2008에서 재인용).

그런데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통제감은 개인마다 다르다. 자신의 통제 능력을 지나치게 작게 판단하고 무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의 통제력을 과장되게 판단하고 지나치게 주장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통제에 실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은 대체로 낮은 통제감으로 인하여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느끼는 반면, 자기애적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의 성취와 능력

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통제 가능성과 다르게 통제감을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며, 통제감이 크다는 것이 곧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함의한다. 통제감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통제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부적응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박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을 통제하려 과도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증상을 나타내지만, 자신의 통제 노력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부조화는 결과적으로 통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민병배, 2000).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항상 보다 많은 통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상황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통제가 커질수록 부정적 경험이나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걱정이 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많은 통제를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이나 상황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일정 부분 통제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한다(Burger, 1989). 상황과 한계를 수용하고 그에 맞추어 통제를 일부 포기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통제감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처하는데, 그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통제양식이다. 통제감을 유지하는 전략에 대한 개념으로는,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가리키는 일차적 통제와 자기를 환경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이차적 통제가 제안되었다(Rothbaum,

Weisz, & Snyder, 1982). 그러나 이들은 객관적 이거나 주관적인 통제 상실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이지 통제 자체는 아니므로 이러한 명칭은 개념적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Skinner, 1996). 이후 Shapiro(1994)는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양식으로서 네 가지 통제양식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긍정적 주장양식(Positive Assertive Mode)이다. 이는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대처양식으로서 이전의 통제전략 분류에서 일차적 통제전략에 해당한다. Shapiro가 제안한 척도에서 긍정적 주장양식은 합리적인, 선도하는, 주체적인, 주장적인, 결단력이 있는 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두 번째는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통제를 유지하려는 대처양식인 긍정적 수용양식(Positive Yielding/Accepting Mode)이다. 이는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이차적 통제전략에 해당한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경청하는, 수용하는, 신뢰하는, 흐름에 맡기는, 양보하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나머지 2가지 통제양식은 앞의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의 대처가 과도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먼저, 세 번째 통제양식은 과도하고 경직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대처양식인 부정적 주장양식(Negative Assertive Mode)이다. 부정적 주장양식은 조종하는, 독단적인, 공격적인, 완고한 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마지막 대처양식은 상황에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대처하는 부정적 수용양식(Negative Yielding/Accepting Mode)이다. 부정적 수용양식은 우유부단한, 방어적인, 소심한, 의존하는, 억누르는 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이러한 통제양식 중 어떤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주장양식에 해당하는 일차적 통제전략은 적응적 가치가 높아(Reed, Taylor & Kemeny, 1993) 일차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유능감(Fisher, 1989: 조설애, 2006에서 재인용), 자기효능감(Pillips & Gully, 1997), 주관적 안녕감(DeNeve & Cooper, 1998)이 높다. 또한 장수하며 건강하다(Chipperfield & Greenslade, 1999). 이 양식은 청·중년(곽지현, 이민규, 2006), 성취와 도전에 가치를 둔 사람(Rothbaum et al., 1982), 그리고 서양문화권(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에서 선호되며, 젊거나 통제 가능한 환경일수록(민병배, 2000; 조설애, 정영숙, 2008; Wrosch, Heckhausen, & Lachman, 2000) 적응적이다.

수용양식에 해당하는 이차적 통제전략은 노년(곽지현, 이민규, 2006; Wrosch & Heckhausen, 1999), 동양문화권(Gould, 1999; Weisz et. al., 1984)에서 선호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곽지현, 이민규, 2006; Wrosch et. al., 2000), 통제 불가능한 환경일수록(민병배, 2000; Aldwin & Revenson, 1987; Coyne, Aldwin, & Lazarus, 1981), 그리고 안전과 만족에 가치를 둔 사람에게(Rothbaum et. al., 1982) 적응적이다.

이와 같이 통제양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나 방식은 복잡하여 통제감이 크거나 작다 혹은 주장적이거나 수용적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는 그 기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측면은 개인 내에는 여러 가지 통제양식이 존재할 수 있고,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제양식 간의 상호작용 또는 독특한 조합이 생성하는 효과와 같은 보다 복합적인 측면까지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관련된 시도 중 박성현, 성승연(2011)은 네 가지 통제양식의

상하 집단을 조합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는데 긍정적 주장양식과 긍정적 수용양식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통제감이 높고, 부정적 통제감과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 통제양식은 통제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적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심민선, 2013). 그 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과 수용 두 가지 통제 전략은 모두 삶에 필요하므로, 일차적 통제 전략(주장양식)과 이차적 통제 전략(수용양식)을 조화롭게 사용할 때 현실에 잘 적응한다고 주장하였다(Rothbaum et. al., 1982). 비슷한 맥락으로 Heckhausen과 Shulz(1995)는 두 가지 통제 전략이 개인의 평생의 발달 과정에서 조절된다고 보았다(곽지현, 이민규, 2006). Shapiro, Schwartz & Astin(1996) 등은 최적의 통제(optimal control)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적 통제의 기준으로 상황과 목표에 부합하는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의 균형과 통합적 사용을 강조하였다(박성현, 성승연, 2011).

그러나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이 개인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는지 그 자연발생적인 패턴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제양식이 개인 내에서 어떤 형태로 같이 사용되는지 밝히고, 각각의 조합 형태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통제양식의 영향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통제양식에 따라 개인의 적응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통제는 관계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hapiro & Shapiro, 1984). 한 사람의 통제를 가하거나 통제를 획득하려 하

는 반응들은 밀접한 관계에서 상대의 적응이나 통제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의 과도한 통제의 행사는 상대의 통제 상실을 의미할 수 있고, 통제감이 침해된 상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학년, 윤대혁, 2007). 특히 통제와 관련된 강력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영역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부모의 통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율성의 발휘 측면이다. 부모의 통제는 자녀의 자율성과 분명한 관계성을 보인다(신중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이은경, 박성연, 2010). 자율성이란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행동할 수 있는 조절자라고 믿고,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느끼며,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2: 허예빈, 김아영, 2012에서 재인용). 자율성은 외부에 의존하는 의존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고 통제당한다는 느낌의 타율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허예빈, 김아영, 2012).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자녀의 자율성은 저하되고(이희선, 권영애, 2012; 전숙영, 2012; 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부모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할 때 자녀는 자율성이 높아진다(Gottfried et al., 1994). 또한 통제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자녀가 혼자 있을 때의 수행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Gurland, DeCoursey & Jacob, 2002).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부모의 행동 통제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함께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신중호 외, 2010; McNeely &

Barber, 2010; Wang, Pomerantz & Chen, 2007: 이회란, 2013에서 재인용)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밀관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통제의 개념과 측정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개념들이 통제로 정의되고 측정된다. 때로는 같은 단어가 매우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상대를 조종하고 강요하는 행위도 통제라고 불리고 상대를 지도하고 촉진하는 행동도 통제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Skinner, 1996). 선행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행동 통제는 강압적인 통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관심과 지도 감독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 있다(김수정, 박금주, 2011)는 점이다. 다른 영향 요인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낮거나 외현화된 행동 문제가 많을 경우 부모의 일상 통제는 문제행동을 조절하고 내적 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중호 외, 2010;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일반적으로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녀가 저성취 혹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 등이 있을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통제양식의 효과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그 통제양식이 사용되는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양식이 사용되는 맥락을 개인이 특정 통제양식과 함께 사용하는 다른 통제양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Shapiro의 통제양식 이론을 기반

으로 개인이 어떠한 방식과 패턴으로 통제양식을 사용하는지 구분하고, 통제양식의 사용 패턴에 따라 자신과 친밀한 타인의 적응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주장적 또는 수용적 양식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통제양식의 조합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통제양식의 사용 패턴에 따라 통제감의 획득이나 유지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대표적인 심리적 적응지표인 삶의 만족이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대인관계적 측면으로는,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개인의 통제양식 사용패턴이 다른 사람의 적응 및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Shapiro & Shapiro, 1984; Shapiro et. al., 1996)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모의 통제양식의 사용이 자녀의 학교적응 및 자율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통제와 상보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개념이 자율성이며 아동의 경우 자율성이나 적응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영역이 학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와 자녀 각각에게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통제양식의 사용방식이 개인의 적응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 및 자율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는 것은, 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인 통제 행동의 구체적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 및 심리적 개입에 기반이 될 것이다.

## 방 법



### 참가자 및 절차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 153명과 그 어머니 15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42세(SD=3.3)였다. 30대가 17.2%, 40대 70.7%, 50대 2.3%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0.6%, 고졸 24.6%, 대졸 69.7%였으며 대학원졸 이상이 5.1%였다. 소득 수준은 낮다고 보고한 비율이 5.2%, 중간 80.5%, 그리고 높다고 보고한 비율이 14.4%였다. 아동은 남자가 44%, 여자가 56%이고, 5학년 44.8%, 6학년 46.9%로 구성되었다.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및 참가자 권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연구 참가 동의 후 설문에 응하였으며, 특히 아동에게는 응답 내용이 어머니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소요시간은 어머니는 15분, 아동은 5분 내외였다.

### 측정도구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통제감과 통제양식으로 구성된 통제척도, 삶의 만족도,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자녀를 대상으로는 자율성을 반영하는 자기결정성 학업동기를 측정하였다.

####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

Shapiro가 개발한 통제척도(Shapiro Control Inventory: SCI)를 성승연, 박성현(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 통제 영역 24문항, 통제양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통제 영역의 하위 요인은 긍정적 통제감, 통제욕구, 부정적 통제감 3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통제욕구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통제양식의 하위 요인은 긍정적 주장양식, 긍정적 수용양식, 부정적 주장양식, 부정적 수용양식 4요인으로 구성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성승연 과 박성현(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통제영역이 .72에서 .87, 통제양식 영역이 .72에서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통제영역의 긍정적 통제감이 .89, 부정적 통제감이 .67이었으며 통제양식은 긍정적 주장양식 .88, 긍정적 수용양식 .77, 부정적 주장양식이 .74, 그리고 부정적 수용양식이 .67이었다.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수정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5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존의 연구(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자녀의 학교적응

자녀의 학교 적응 수준은 Stanley 외(2008)가 개발한 학교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에 대한 호감(School liking), 지각된 학교 성취(Perceived school performance), 학교 문제(School problem)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긍정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에 대한 호감과 지각된 학교 성취, 두 하위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장암미(2014)의 연구에서

.84와 .64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와 .67이었다.

### 자기결정성 학업동기 척도

자기결정성 학업동기 척도인 학업적 자기조절척도(SRQ-A, Ryan & Connell, 1989)와 학업동기척도(AMS, Vallerand, Pelletier Briere, Senecal & Vallieres, 1992)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기결정성 학업동기 척도들(고경희, 2003; 김민수, 2006; 김은영, 2007; 심우엽, 2001; 이민희, 2006)을 재구성하여 정지영, 김희화(2010)가 개발한 척도이다. 24문항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이다. 자기결정성 수준이 낮아지는 순서에 따라 내재동기, 동일시동기, 내사접근동기, 내사회피동기, 외적동기, 무동기로 나누어지며 척도의 신뢰도는 정지영과 김희화(2010)에서 .84, .83, .76, .76, .81 그리고 .7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 .88, .79, .75, .83 그리고 .81이었다. 동기유형을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자율적 동기 수준에 관심을 둔 연구에서는 상대적 자율성지수(Relative Autonomy Index; RAI)를 계산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동기지향성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는데(김아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자율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yan(2002)이 제안한 1)상대적자율성 지수 산출 방식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자율성으로 표기하였다.

### 자료 분석

단일 변인 중심으로만 현상을 이해하려 할 때, 변인들 간의 조합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해

- 1) 상대적자율성 지수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자율성 지수 = (2 × 내적동기 + 동일시동기) - (내사동기 + 외적동기 × 2)

생겨나는 고유한 영향이 가려질 수 있다(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4가지 통제양식은 한 개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 내에서 4가지 통제양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Shapiro, 1994), 통제양식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별 변인의 효과보다 통제양식들 간의 조합과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박성현, 성승연, 2011). 여러 통제양식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는 자연발생적인 개인차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군집분석이 유용하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통제양식의 조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군집들을 구분하였고,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에 따라 모의 적응과 자녀의 적응 및 자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이어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ir & Black, 2000: 최해연, 2008에서 재인용).

### 결 과

모의 통제양식과 모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모의 통제양식 간 상관관계를 보면, 긍정적 주장양식은 부정적 주장양식과는 높은 정적

표 1. 모의 통제양식과 모·자녀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모의 통제 양식	1. 긍정주장	-								
	2. 긍정수용	.129	-							
	3. 부정주장	.541**	-.245**	-						
	4. 부정수용	-.164*	.173*	.295**	-					
모의 적응	5. 긍정적 통제감	.510**	.191*	.094	-.265**	-				
	6. 부정적 통제감	-.306**	-.165*	.167*	.435**	-.379**	-			
	7. 삶의 만족도	.328**	.057	.104	-.251**	.275**	-.292**	-		
자녀의 적응	8. 학교적응 (모 응답)	.335**	.109	.179*	-.049	.217**	-.172*	.317**	-	
	9. 자율성 (자녀 응답)	.165*	.291**	-.077	-.120	.189*	-.292**	.135	.328**	-
	M	2.79	2.93	2.26	2.49	5.02	2.60	4.02	3.88	4.53
	SD	.45	.39	.52	.43	.87	.96	1.22	.72	5.23

\*\* $p < .01$ , \* $p < .05$

상관( $r = .541, p < .01$ )을 나타냈다. 긍정적 주장양식은 긍정적 수용양식과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고, 부정적 수용양식과는 약한 부적 상관( $r = -.164, p < .05$ )을 보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부정적 수용양식과는 유의하나 약한 정적 상관( $r = .173, p < .05$ )을 나타내고 부정적 주장양식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245, p < .01$ ). 부정적 주장양식은 부정적 수용양식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모의 통제양식과 심리적 적응 지표 간 상관관계를 보면, 긍정적 주장양식은 통제감 및 삶의 만족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은 통제감과 상관이 유의하나 낮은 수준이었고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수용양식은 통제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반면,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적 통제감과 부정적 통제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적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 부정적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모의 통제양식과 자녀의 적응 간 상관을 보면, 자녀의 학교적응은 모의 긍정적 주장양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주장양식과도 약하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주장양식을 사용하는 모일수록 자녀가 학교적응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자녀가 직접 응답한 자신의 자율성 수준은 모의 긍정적 주장양식( $r = .165, p < .05$ ), 긍정적 수용양식( $r = .291, p < .01$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모의 부정주장이거나 부정수용 양식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요약하면, 모가 긍정적 주장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 수용양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모 자신은 통제감을 더 많이 느끼고 삶의 만

족도가 높았으며, 부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적 통제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모가 주장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모 자신은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자녀 스스로 보고한 자율성은 모의 긍정적 수용양식을 비롯한 긍정적 통제양식들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실제 삶의 다양한 사건에 따라 개인은 한 가지 양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제양식을 조합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따라 어떤 방식으로 통제양식들을 같이 사용하는지, 어떤 조합이 적응적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의 4가지 통제양식이 조합되는 형태를 알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으로 분석 후 해석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4개의 군집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집의 수를 결정한 후 생성된 군집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사례들의 소속 군집을 정하였다. 표 2는 각 군집의 평균을 0으로 조정하

여 표준화한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군집 1은 49명(32.0%), 군집 2는 46명(30.0%), 군집 3은 34명(22.2%), 군집 4는 24명(15.7%)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별로 통제양식들이 조합된 형태를 검토하였다. 군집 1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높고 긍정적 수용양식과 부정적 수용양식은 모두 평균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들은 상황을 수용하거나 통제를 포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집단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장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 부정적 수용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낮고 긍정적 수용양식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은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르는 성격의 집단으로 파악하여 '수용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긍정적 주장양식과 부정적 주장양식, 긍정적 수용양식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고 부정적 수용양식의 점수만 월등히 높은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이나 상황을 통제하기

표 2. 군집중심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주장형	수용형	무기력형	통합형
긍정적 주장양식	0.37	-0.52	-0.63	1.19
부정적 주장양식	0.37	-0.98	-0.05	0.91
긍정적 수용양식	-0.98	0.65	-0.16	0.95
부정적 수용양식	-0.62	-0.47	0.99	0.62
군집 크기	49명 (32.0%)	46명 (30.0%)	34명 (22.2%)	24명 (15.7%)

\* 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 M=0, S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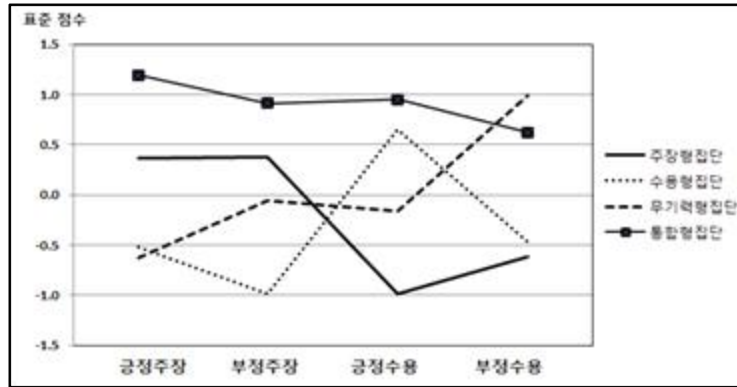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집단으로서, 부정적 수용양식의 방어적이고 의존적 특성을 부각하여 ‘무기력형’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긍정적 주장양식, 부정적 주장양식, 긍정적 수용양식 그리고 부정적 수용양식이 모두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특히 통제양식 각각의 점수가 다른 모든 집단의 가장 높은 점수보다 높았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되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수용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등 4가지 통제양식을 모두 활용하는 집단이라 평가되어 ‘통합형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군집의 구성과 특성은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주장양식, 부정적 주장양식, 긍정적 수용양식, 부정적 수용양식 등 모의 4가지 통제양식의 조합으로 추출된 4개 집단이 모의 심리적 적응과 자녀의 학교적응 및 자녀의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통제감에서 통합형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

으며, 주장형 집단과 수용형 집단도 무기력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에서는 통합형 집단과 주장형 집단이 무기력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무기력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 통제감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긍정적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에 비해 수용형 집단은 부정적 통제감에서 다른 네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긍정적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무기력형 집단에 비해 적응적인 수준을 보였다. 통합형 집단은 주장형 집단 및 수용형, 무기력형 집단보다 긍정적 통제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장 양식과 수용 양식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집단의 긍정적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 평균을 표준화한 점수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자녀의 학교적응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은 통합형 집단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수용형 집단이

표 3. 군집별 특성 비교

종속변인	집단	N	평균(SD)	F	대응별비교
긍정적 통제감	1. 주장형	49	5.08(0.86)	7.31**	4>1, 2>3
	2. 수용형	46	5.00(0.87)		
	3. 무기력형	34	4.56(0.78)		
	4. 통합형	24	5.60(0.76)		
부정적 통제감	1. 주장형	49	2.53(0.80)	4.70**	3>1, 4, 2
	2. 수용형	46	2.37(0.84)		
	3. 무기력형	34	3.14(1.05)		
	4. 통합형	24	2.47(1.14)		
삶의 만족도	1. 주장형	49	4.31(1.01)	3.62*	1>3
	2. 수용형	46	3.94(1.33)		
	3. 무기력형	34	3.49(1.14)		4>3
	4. 통합형	24	4.28(1.21)		

대응별 비교는 유의한 차이만 부등호로 표시함.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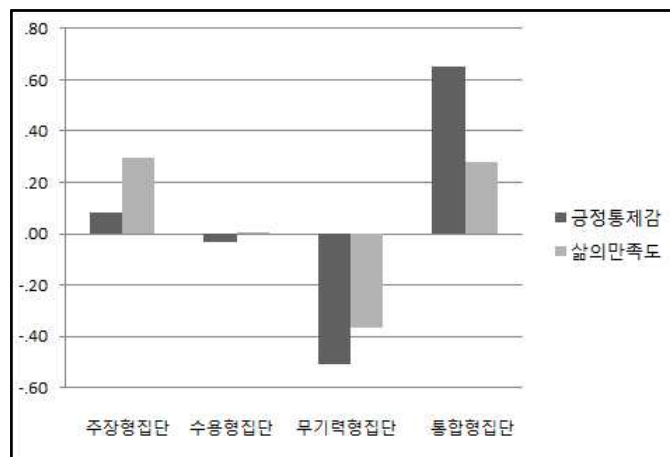


그림 2. 모의 통제양식유형별 모의 통제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 (표준 점수: M=0)

었다. 대응별 비교에서는 통합형 집단과 다른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자녀의 자율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변

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의 통제양식 군집에 따른 자녀의 자율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제

표 4. 군집별 집단 간 차이 검증 - 자녀의 학교 적응 및 자율성

종속변인	집단	N	평균(SD)	F	대응별비교
자녀의 학교 적응 (모 응답)	1. 주장형	49	3.94 (0.68)	4.16**	4>1, 2, 3
	2. 수용형	46	3.65 (0.77)		
	3. 무기력형	34	3.82 (0.66)		
	4. 통합형	24	4.28 (0.71)		
자녀의 자율성 (자녀 응답)	1. 주장형	49	3.46 (4.51)	-	4>1
	2. 수용형	46	5.52 (4.92)		
	3. 무기력형	34	3.56 (6.54)		
	4. 통합형	24	6.20 (5.24)		

대응별 비교는 유의한 차이만 부등호로 표시함.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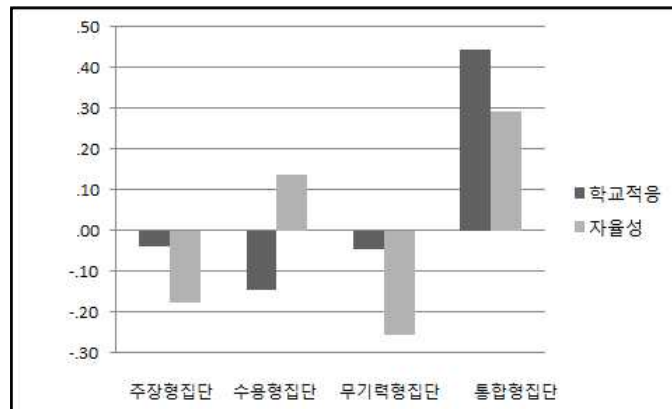


그림 3. 모의 통제양식유형별 자녀의 학교적응(모응답)과 자율성 수준(자녀응답)  
(표준 점수: M=0)

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Shapiro의 다차원적 통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통제양식의 특징과 그에 따른

모 자신의 적응 및 자녀의 적응은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모가 주로 사용하는 통제양식의 조합으로 군집을 분류하고, 모 자신과 그 자녀의 적응 지표를 활용하여 각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군집은 4개로 나뉘어졌다. 4개 군집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주장양식을 모두 사용하는 ‘주장형’ 집단과 긍

정적 수용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수용형’ 집단, 부정적 수용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무기력형’ 집단, 그리고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합형’ 집단이다. 통합형 집단은 모의 긍정적 통제감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서는 무기력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고, 부정적 통제감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통제양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학교 적응에서도 통합형 집단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높은 평균을 보였다.

모의 통제양식과 자녀의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주목할 결과는 긍정적 주장양식은 자녀의 자율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들(이희선, 권영애, 2012; 전숙영, 2012; Gottfried et al., 1994) 신중히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통제전략을 단일 변인으로 다룬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장적 통제방식을 긍정과 부정 주장양식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긍정적 주장양식은 모 자신의 적응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적응 및 자율성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모의 부정적 주장양식은 모의 통제감이나 삶의 만족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고 자녀의 자율성과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다만 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학교적응과 유의하나 약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 중 강압적이지 않고 관심과 지도 영역에 속하는 행동 통제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신중호 외, 2010; 김수정, 곽금주, 2011)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것이

다. 통합형 집단에서 학교적응을 비롯한 적응 변인들의 수준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통합형 집단이 4집단 중 긍정적 주장양식 수준이 가장 높은 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모의 긍정적 주장양식의 일환으로 자녀가 애정이나 관심으로 느낄만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의 주장양식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자녀에게 통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각되어 통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한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수용양식은 자녀의 자율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수용양식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상대에게 맡김으로써 통제를 유지하는 양식이다. 긍정적 수용양식이 높은 통합형 집단과 수용형 집단에서는 자녀가 보고하는 자율성 수준이 평균보다 높다. 주장형 통제양식들만을 사용하는 모를 둔 경우보다 주장형과 수용형을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모를 둔 아이들이 학업상황에서 자기결정성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형의 통제양식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격려하는(Gottfried et al., 1994) 방식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모의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용형 집단은 긍정적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정도는 아니었고 부정적 통제감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수용형 집단은 주체적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통제감을 유지한다. 그런데 다른 통



제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수용만 높은 경우 모의 통제감이나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에 머무른다. 한편 부정적 수용양식만 주로 사용될 때는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나 통합형 집단과 같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수용 양식이 주장양식과 균형을 이룰 때는 개인은 높은 통제감과 삶의 만족을 보고한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적극성과 주도성, 자기주장성과 관련이 있다는(차경호, 2001) 측면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통제양식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장형 통제양식만을 발휘할 경우, 자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상황에 수용적이지 않고 주장적인 통제양식을 주로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자녀는 자율성을 갖기 어렵고 내적으로 동기화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녀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많은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에 대한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노영주, 한경혜, 2000; 박정원, 2015). 동시에 학령기의 아동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가 약하고 수동적이라는 점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모의 적극적이고 주장적인 통제양식이 수용적인 통제양식과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통합형 집단'으로 명명한 군집은 4가지 통제양식 모두 평균 이상의 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긍정적인 주장양식과 수용양식을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부정적인 주장양식과 수용양식도 모두 혼합하여 사용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 결과 이 집단이 자신과 자녀의 적응 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부정적인 방식의 통제양식이 긍정적인 방식의 통제양식과 균형을 이룰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주장과 수용 두 가지 통제양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결과(박성현, 성승연, 2011; Rothbaum et al., 1982)와 일관적이다.

본 연구는 통제양식과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적응까지 포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모-자녀 관계에서 통제를 다룰 때에 선행연구들이 흔히 모의 양육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의 일반적인 통제양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제양식은 일상 전반에 걸쳐 성격과 태도를 통해 표현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와 자녀라는 다른 원천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동일 자료 편파(same source bias)를 방지한 점은 유용하나, 한편으로는 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 간 상관이 낮게 나타나, 자녀의 적응과 자율성에 미치는 모의 영향이 명확하게 검증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양식에 따른 자녀의 자율성에서 집단차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이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적응과 자율성의 다양한 영역이 추가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형태의 주장과 수용이 개인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으며, 통제양식의 조합에 의한 군집 구분 역시 반복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교육 장면에서 개인 및 부모-자녀에 대한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부정적 수용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주장성과 자기효능 훈련 등의 개입을 통해 자기가 통제의 주체가 되는 느낌을 증가시키고 (Shapiro et. al., 1996) 통제양식 간의 균형있는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통제양식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통제양식을 인식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개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통제양식의 프로파일은 개인의 적응은 뿐 아니라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 관계에 대한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민주, 현명호, 신여운 (2007). 걱정과 통제가능 여부가 통제력 지각 및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11-130.

곽지현, 이민규 (2006). 심리적 통제전략과 안녕감 간의 관계: 전생애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청년, 중년, 노년성인의 비교. *한국노년학*, 26(3), 565-580.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김학년, 윤대혁 (2007). 성격유형과 통제위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4, 특별호, 65-91.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녀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67.

남현주, 이현지 (2005). 여성 노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이 우울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연구*, 27(1), 255-277.

노영주, 한경혜 (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민병배 (2000). *강박사고와 걱정: 침투사고 대처 과정 및 관련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현, 성승연 (2011). 통제양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45-262.

박정원 (2015). *중년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중학생자녀의 자기주도성 발달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승연, 박성현 (2008). 한국판 Shapiro 통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11-132.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4(1), 121-137.

심민선 (2013). *노년기의 통제감, 통제양식,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통제양식의 조절 및 매개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근영, 방희정, 옥 정 (2006). 자아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47-65.
- 이은경, 박성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이희란 (2013). 부모의 자율성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녀의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선, 권영애 (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0(8), 125-135.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243-261.
- 장암미 (2014). 부모, 교사 및 또래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리, 이정남, 윤현숙, 김수영 (2008). 노년기 자기 통제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노년학*, 28(4), 1055-1068.
- 전숙영 (2012).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4), 61-79.
- 정지영, 김희화 (2010). 한국 초등학생의 학업동기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청소년학연구*, 17(11), 117-137.
- 조설애 (2006). 일차통제와 이차통제의 조화가 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설애, 정영숙 (2008). 상황의 통제가능성에 따른 노인의 일차통제와 이차통제 사용과 정서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89-107.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 연구*, 9, 7-26.
- 최혜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허예빈, 김아영 (201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4), 1075-1096.
- Aldwin C. & Revinson, T. (1987). Dose Copying Heo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37-348.
- Averill, J. R. (1973). Personal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 and Its Relationship to Stress. *Psychological Bulletin*, 80(4), 286-303.
- Burger, J. M. (1989). Negative Reactions to Increases in Perceived Perso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46-256.
- Chipperfield, J. G., & Greenslade, L. (1999). Perceived control as a buffer in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4B, 146-154.

- Coyne, J. C., Aldwin, C., & Lazarus, R. S. (1981). Depression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439-447.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A.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ttfried, A. W. (1994). Role of parental motivational practices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1), 104-113.
- Gould, S. J. (1999). A Critique of Heckhausen and Schulz's(1995) Life-span theory of control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sychological Review, 106*, 597-604.
- Grolnick, W. S., Gurland, S. T., DeCoursey, W., & Jacob. K.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others' autonomy suppor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1), 143-155.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63-773.
- McNeely, C. A., & Barber, B. K. (2010). How do parents make adolescents feel loved? Perspectives on supportive parenting from adolescents in 12 cultur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4), 601-631.
- Phillips, J. M., & Gully, S. M. (1997). Role of Goal Orientation, Ability, Need for Achievement, and locus of Control in the Self-Efficacy and Goal-Sett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5), 792-802.
- Reed, G. M., Taylor, S. E., & Kemeny, M. E. (1993).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gay men with AID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791-824.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5-37.
- Shapiro, D. H. (1994). *Manual for the Shapiro control Inventory*(SCI). Palo Alto, CA: Behaviordata.
- Shapiro, D. H., Schwartz, C. B., & Astin, J. A. (1996). Controlling ourselves, Controlling our world: Psychology's role in understanding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 of seeking and gaining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51*, 1213-1230.
- Shapiro, J., & Shapiro, D. (1984). Self-control and Relationship: Toward a Model of Interpersonal Health.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4*(4), 91-116.
- Skinner, E. A. (1996). A guide to construct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549.
- Thompson, S. C., Sobolew-Shubin, A., & Galbraith, M. E. (1993). Maintaining Perceptions of Control: Finding Perceived Control in Low-Control Circumstance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93-304.
- Weisz, J. R., Rothbaum, F. D.,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9), 955-969.
- Wrosch, C., Heckhausen, J. (1999). Control processes before and after passing a developmental deadline: Activation and deactiv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415-427.
- Wrosch, C., Heckhausen, J., & Lachman, M. E. (2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Strategies for Managing Health and Financial Stress Across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Vol. 15(3), 387-399.
- 1차원고접수 : 2016. 04. 02.  
수정원고접수 : 2016. 05. 24.  
최종게재결정 : 2016. 05. 31.

## A study on mothers' control modes and adaptation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Jeong-Ok Lee

Hae-Youn Choi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Based on the multi-faceted control concept of Shapir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control modes used by mothers, and their impact on adaptation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The 153 5th or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153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mbination of the four control modes of mothers formed four clusters, which were named; 'the assertive group' using positive and negative assertive type control modes in the main, 'the yielding group' using positive acceptive type control mode in the main, 'the lethargy group' using negative acceptive type control mode in the main, and 'the integration group' using all the 4 types control modes. The integration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ense of control and life satisfaction, while the lethargy group had low sense of control and life satisfaction. Children of the integration group were reported to show significantly higher school adaptation compared other groups. But children of the integration type group showed higher autonomy only compared to the assertive group. The importance of balanced use of control modes was discussed.

*Key words* : control, control mode, autonomy, cluster analysis, mothers' adaptation